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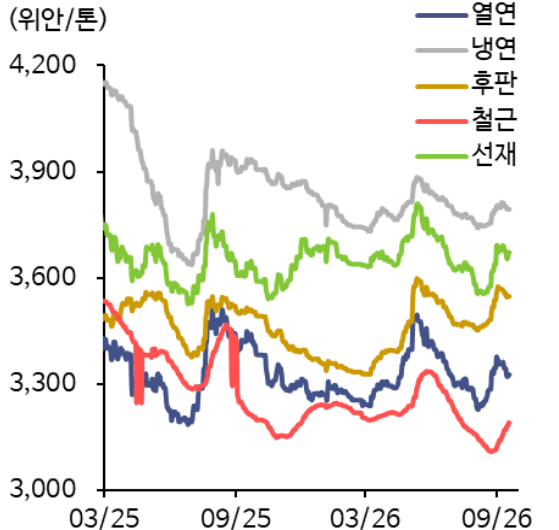
철강·비철금속 Blink Report



[자동차/철강금속] 박광래 연구위원 ☎ 02-3772-1513 ✉ krpark@shinhan.com

철강금속 주간 Review & P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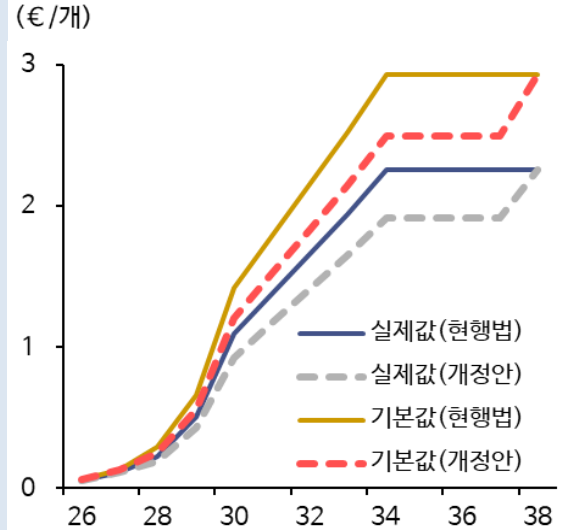
◆ 중국 주요 철강제품 유통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EU CBAM 품목 대폭 확대, 핵심은 '데이터 추적'

◆ 車 부품 1개당 CBAM 비용 경로와 민감도



자료: EU ETS, 신한투자증권

▶ 철강

이번 주 중국 철강시장은 전주 대비 상황은 나아졌으나 본격적인 수요 회복 국면으로 규정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중국 건설재 사회재고는 전주 대비 3.4% 감소. 동부지역은 중추절·국경절 연휴 전 비축수요가 시작되면서 재고 감소가 빨라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재고가 이미 전년동기 수준 아래로 내려갔음. 북부지역에서는 실수요가 약해 재고가 오히려 소폭 증가. cisa 주요 회원사 기준 9월 상순 철강제품 재고는 1,652만톤으로 직전 10일전 대비 1.7% 증가. 건설재 유통재고는 감소하는 반면 제철소 전체 재고는 다시 증가했다는 것은 수요회복이 철강 전 제품으로 확산된다는 그림은 아니라는 방증

▶ 비철금속

***구리:** 가격 조정과 달리 중국 현물은 여전히 타이트한 상황. 14일 중국 주요 지역 전기동 사회재고는 전주보다는 증가했지만 YoY로는 41.4% 적음. 동봉 가공률은 60.0%(-1.58%p WoW). 가격 조정으로 인해 실수요 매입 의향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도 포착. COMEX-LME 가격차가 축소되면서 미국으로 재고를 옮겨놓을 차익 프리미엄은 크게 축소

***아연:** 가격 상승 모멘텀 둔화와는 달리 실물 재고는 감소. 17일 중국 7개 주요 지역 아연 잉곳 재고는 21.4만톤으로 14일 대비 9,000톤 감소. Shanghai 재고는 14일 이후 3일간 7,600톤 감소. 아연 가격이 하락하자 실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재고를 축적하는 상황. 가격 조정에도 재고가 계속 빠진다면 이번 비철 조정 이후 다시 가장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금속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리튬:** 중국 탄산리튬 가격 단기 지지선이었던 14만위안이 붕괴. 12만 위안이 새로운 지지선으로 자리잡음

▶ 최근 유럽의회 표결을 거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쟁점은 규제 그물망을 대폭 넓히는 데 있다. 당초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다운스트림 적용 품목은 180개였으나, 현재 유럽의회 협상안에서는 2.54배 급증한 457개로 확대되었다. 또한 알루미늄 제품의 CBAM 면제 기준은 기존 연간 수입량 50톤에서 5톤으로 90%나 축소되어, 중량은 적고 단가가 높은 자동차 부품들이 규제를 회피할 구멍이 원천 차단되었다. 반면 단위당 탄소비용 상승 속도는 다소 조절될 전망이다. 집행위는 무상할당이 완전히 종료되어 CBAM이 100% 적용되는 시점을 현행법상 2034년에서 2038년으로 4년 유예하는 안을 제시했다.

▶ 규제 범위 확장은 완성차 업체보다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Tier 1-2 부품사에 더 치명적이다. 새시, 휠 등 핵심 부품이 대거 편입되었고 스크랩 규제도 더 깐깐해졌다. 생산 과정 내 공정 스크랩은 물론 폐차 등에서 회수한 스크랩까지 탄소 비용 계산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면서, 단순 재활용재 사용만으로는 탄소 감축을 인정받기 어려워졌다. 이제 수출 기업은 톤당 실제 배출량, 원재료 조달 경로, 제3자 검증 자료 등 부품단위의 데이터 역추적 능력을 입증해야만 한다.

▶ 현재 CBAM 인증서 가격은 1Q26 기준 톤당 75.36유로 수준이다. 기존 한국무역협회는 180개 품목을 기준으로 무상할당 종료 시 대EU 수출 가격이 최대 18.2% 상승하고 물량은 17.9%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으나, 대상이 457개로 늘어나면 수출 타격 규모는 이를 훌쩍 넘어서게 된다.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첫 연간 배출량 신고가 2027년 9월로 다가왔다. 한국 부품사에 닥친 1차적 위험은 2028년 이후 본격화될 '현금 납부'보다, 배출량 검증 시스템 구축과 유럽 고객사의 인증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 '데이터 확보 비용'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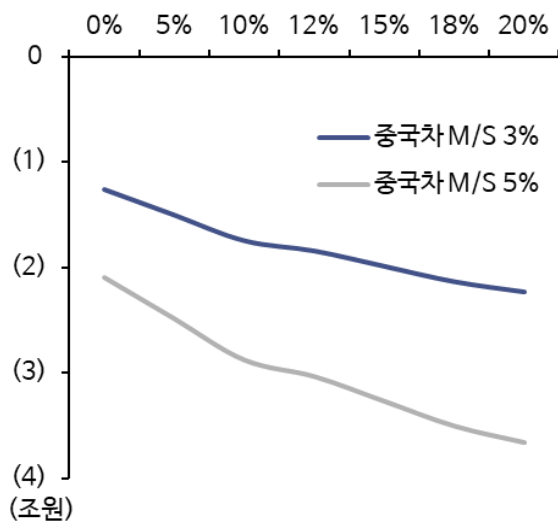
자동차 Blink Report



[자동차/철강금융] 박광래 연구위원 ☎ 02-3772-1513 ✉ krpark@shinhan.com

중국차 美 시장 진입 시나리오 분석

◆ 美 시장 중국 차 전환율과 현대차그룹 `30년 이익 민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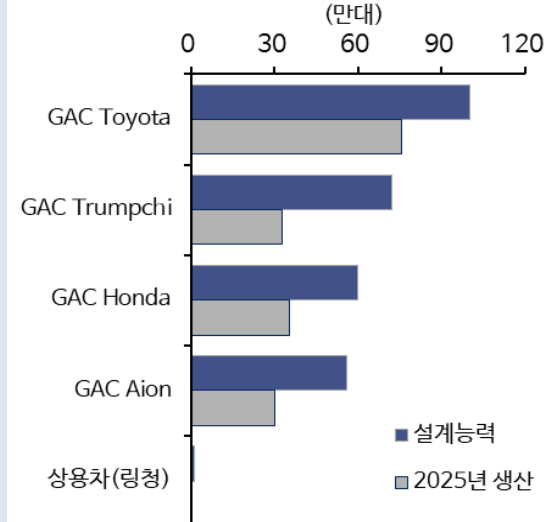
자료: 신한투자증권 추정

주: 전환율 5% = 중국 브랜드 신규 수요 중 5%가 기존 현대차그룹 물량

- ▶ 트럼프 대통령은 9월 11일 중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을, 멕시코에서 차량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중국 기업의 미국 투자 허용'과 '중국 자동차의 미국 시장 개방'은 아직 전혀 다른 문제다.
- ▶ 미국 시장을 겨냥한 중국 자동차 업체의 최대 진입 장벽은 127.5%에 달하는 고율 관세보다 데이터·SW를 통제하는 커넥티드카 규제에 있다. 2027년부터 중국 자본의 개입과 SW 탑재가 제한되면서 중국 OEM별 우회 경로가 뚜렷해지고 있다. 수직계열화가 강한 BYD는 규제 회피가 까다롭지만, Geely는 볼보를 통한 기술 공유, Chery는 현지 파트너와의 JV, SAIC는 GM과의 JV 연장을 통한 플랫폼 공유 방식을 통해 미국 진입을 시도할 전망이다. 이는 미국 시장 점유율 11.3%를 전 현대차·기아에 직접적인 위협이다. 투싼, 스포티지 등 중국 브랜드와 핵심 차급이 겹치는 경쟁 노출 물량만 현대차·기아 미국 판매의 50.6%(92.9만 대)에서 최대 70.7%(129.9만 대)에 이른다. 경쟁 구도 역시 BEV를 넘어 저가 PHEV 및 EREV 등 내연기관 혼합 모델로 변질 것이다.
- ▶ 판매량 감소 그 자체보다 '인센티브 출혈 경쟁'에 따른 수익성 훼손이 더 큰 리스크다. 2030년 중국차 점유율이 3%에 달할 경우 현대차·기아 판매는 8.9만 대 줄고 합산 영업이익은 약 2조원 감소가 예상된다. 점유율이 5%까지 오르면 대당 인센티브가 1,250달러 급증하며 영업이익 충격은 무려 약 3.5조원(현대차 1.9조원, 기아 1.6조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 ▶ 투자자들은 단기 판매 대수 뿐만 아니라 미국 상무부(BIS)의 규제 변화와 중국 업체의 현지 JV 동향도 함께 살펴야 한다. 이후 미국 c-suv 시장의 실거래가(ATP) 하락과 현대차·기아의 대당 인센티브 인상 폭을 확인하는 것이 향후 실적 추정치 조정의 핵심 잣대가 될 것이다.

한계에 달한 中 자동차, '통합 및 구조조정'으로 가나?

◆ 광저우자동차(GAC) 공장 가동률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 ▶ 최근 중국 자동차 산업은 고질적인 과잉설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대응 방식을 '수출 확대'에서 '국유업체 통합 및 설비 구조조정'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2026년 1~8월 중국의 내수 판매는 YoY 급감한 반면, 수출은 66.7%나 폭증하며 전체 판매의 35.2%를 차지했다. 극심한 내수 부진을 수출로 상쇄하고 있는 형국이지만, 폭발적인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5,500만대에 육박하는 총생산능력 대비 실제 생산량은 3,000만대 수준에 그쳐 공장 가동률은 67%에 머물고 있다. 가동률을 정상 궤도인 80%로 끌어올리려면 최대 730만대의 설비를 감축해야 하며, 이는 단순한 할인 공세나 수출 확대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다.
- ▶ 일례로, 국유 완성차 업체인 GAC는 2025년 공장 가동률이 60%대 초반으로 추락하며 심각한 재무 위기에 직면했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GAC와 FAW의 협력 논의는 중국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양사가 운영 중인 도요타 합작법인의 판매량과 딜러망이 동반 축소되는 가운데, 이들의 합병이 성사된다면 대대적인 효율화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도 이러한 구조조정에 힘을 싣고 있다. 정부는 가격 경쟁을 억제하고 대형 자동차 그룹 간의 M&A와 자원 통합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 ▶ 중국 자동차 과잉설비 해소는 M&A, 설비 폐쇄, 해외 현지 생산으로 진화할 것이다. 경쟁력이 뒤처지는 국유 합작법인들은 통합되고, BYD나 지리 등 소수의 거대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완성차 업체에 단기적으로는 중국발 가격 경쟁 완화라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을 거쳐 더욱 강력해진 중국의 소수 정예 '메가 메이커'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현지 생산을 무기로 우리의 핵심 경쟁자로 부상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자동차/부품/타이어 뉴스

▶ **현대차그룹, 엔비디아 L2+는 2028년 자체 Atria AI는 2029년...자율주행 '투트랙' 공식화**
: 현대차그룹이 엔비디아 기반 초기 상용화와 자체 Atria AI 내재화의 투트랙 자율주행 전략 공식화
: 엔비디아 솔루션 기반 L2+는 2028년 상반기, L2++는 2028년 하반기, 자체 Atria AI 기반 L2++는 2029년 하반기 양산 목표로 기존 자체 SW 일정(2027년 말) 대비 약 2년 지연
: 단기적으로 NVIDIA Hyperion 10을 도입해 테슬라·중국과의 격차를 좁히고, 초기 L2+/L2++는 라이다를 배제한 카메라·레이더·초음파 센서로 구성하되 L3부터 라이다 적용 검토
: 연 700만대 이상 글로벌 양산차 기반 주행 데이터를 확보해 2033년 누적 데이터 경쟁 우위 달성 목표

▶ **로보티즈, 액추에이터 수주잔고 50만대 이상...생산능력 부족 국면 진입**
: 로보티즈의 로봇용 액추에이터 주문 폭증으로 수주잔고가 50만대 이상을 기록하며 마곡 생산설비가 100% 풀가동 국면에 진입
: 1H26 액추에이터 출하량은 약 22만대로 2025년 연간 출하량을 이미 초과 달성했으며, 2Q26 북미와 중국 매출은 각각 YoY +142.4%, +154.0% 급증
: 허깅페이스의 소형 이족보행 로봇 MicroDuck에 액추에이터(Dynamixel XL330) 15개가 탑재(ASP 약 2만원)되어 대당 약 30만원 매출 창출
: MicroDuck 선주문 1.5만대 기준 약 45억원, 5만대 확대 시 약 150억원의 신규 매출이 발생하며 연 30만대인 생산능력을 2028년 300만대, 2031년 500만대 이상으로 증설 계획

▶ **기아, 대형 전기 PBV 'PV7' 세계 최초 공개...96.2kWh-WLTP 460km+**
: 독일 하노버 IAA Transportation 2026에서 PV5에 이은 두 번째 전용 PBV인 PV7을 세계 최초 공개, 한국과 유럽 출시는 2027년 하반기 예정
: PBV 전용 플랫폼 E-GMP 5 기반에 71.5kWh 및 96.2kWh NCM 배터리를 탑재하며 롱레인지 기준 WLTP 주행거리 460km 이상, 10-80% 급속충전 20분대 중반 목표
: 전장 5,350mm, 휠베이스 3,500mm의 대형급으로 Cargo-Passenger 모델부터 출시되며 범퍼-휠까지 분할 고체 구조로 플릿 유지보수 비용(TCO) 절감
: Pleos Connect, 생성형 AI 'Gleo AI', Pleos Fleet를 결합해 단순 전기편을 넘어 플랫폼 SDV 플랫폼으로 확장하며 향후 SW·서비스 매출이 핵심 경쟁력

▶ **기아, 인도 8월 판매 +48%...쏘렌토 투입으로 HEV 시장 첫 진입**
: 8월 인도 내수 판매량 29,042대를 기록하며 YoY +48.1% 급증, 인도 시장 진출 이래 역대 8월 판매 기준 최대 실적 달성
: 1-8월 누계 판매량은 220,991대로 YoY +20.1% 성장했으며, 현지 아난타푸르 공장은 상반기 생산능력 18만대 중 170,116대를 생산해 공장 가동률 94.5% 기록
: 9월 쏘렌토 출시를 통해 인도 시장에 최초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투입했으며, 향후 Syros EV 등과 함께 내연기관 중심 라인업을 BEV 및 HEV 체제로 전면 확장
: 2030년 인도 시장 판매 41만대, 점유율 7.6%, 친환경차 8종 출시를 목표로 제시했으며, 중국 시장 회복 제한 속에서 인도가 중장기 핵심 증분 시장으로 안착

▶ **중국 제1의 글로벌 EV 판매 +30.5%...현대차그룹 +24.8%로 4위**
: 2026년 1-7월 중국 시장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EV-PHEV) 신규 등록 대수는 543.4만대를 기록하며 YoY +30.5%의 견조한 성장세 지속
: 폭스바겐그룹이 73.96만대로 1위, 테슬라 67.67만대(YoY +27.2%), BYD 59.44만대(YoY +84.3%) 순이며 현대차그룹은 YoY +24.8% 성장하며 글로벌 4위 기록
: BYD가 중국 내수 중심에서 벗어나 비중국 시장에서도 YoY +84.3%에 달하는 폭발적 성장세를 기록하며 글로벌 3위로 도약한 점이 핵심 변화
: 중국 일체의 해외 진출이 저가 EV 단순 수출을 넘어 유럽 현지 공장 가동 및 전기 상용차 라인업 확대로 진화함에 따라 현대차·기아의 글로벌 시장 경쟁 강도가 구조적으로 심화되는 국면

▶ **현대차, 카자흐스탄 신형 투싼 생산...전기차 협력도 검토(서울경제)**
: 성 김 현대차그룹 전략기획담당 사장은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회담
: 알마티 공장 내 신형 투싼 생산 협약 체결, 알마티 공장은 현대 쏘나타, 싼타페 등 조립 생산 중인 현지 생산 기지
: 현대차는 지난 해 카자흐스탄에서 총 5.9만대를 판매하며 브랜드 1위 유지(전체 신차 판매액 23.5만대)

▶ **한국타이어, 신형 아반떼에 '키너지 XP' 공급...북미·유럽까지 확대(디지털데일리)**
: 한국타이어, 현대차 '디 유 뉴 아반떼'에 사계절용 그랜드 투어링 타이어 '키너지 XP' 신차용 타이어(OE) 공급 발표
: 이번 공급으로 한국타이어는 7세대 아반떼에 이어 8세대 모델에도 신차용 타이어 공급, 국내 시장을 시작으로 향후 북미 일산 모델과 유럽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
: 한국타이어는 차급과 파워트레인별 제품군을 바탕으로 현대차그룹과 신차용 타이어 공급 협력을 확대한다는 계획

▶ **트럼프 '中' 자동차, 미국서 만들면 문제없다...현대차·기아 '긴장'(데일리안)**
: 트럼프 대통령,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 자동차 업체에 미국 현지 생산에 대해 "중국이 들어와 공장을 짓고 미국인을 고용한다면 나는 괜찮다"고 밝힘
: 이에 따라 그간 미국 시장 진출이 사실상 원천 차단돼 있던 중국 자동차 업체에 일말의 가능성이 생겼다는 평가
: 당장의 규제 철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 업체가 미국 시장에 발을 들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기며 현대차그룹에 잠재적 위협으로 작용
: 업계에서는 실제 중국 자동차 업체가 미국 시장에 진입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전망. 트럼프 행정부가 관련 규제를 손보더라도 중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미국 정치권과 현지 자동차업계의 경계가 강하기 때문

▶ **빅웨이브로보틱스, 공모가 최상단 1만8000원 확정(아시아경제)**
: 7~11일 수요예측, 국내외 2,255개 기관 참여, 1,109.37:1 경쟁률 기록, 총 공모금액 288억원, 예상 시가총액 1,849억원
: 기관투자자들은 빅웨이브로보틱스의 검증된 실적과 산업용 휴머노이드, 북미 시장이라는 명확한 성장 동력을 높게 평가하며 밴드 최상단 가격을 중심으로 참여
: 빅웨이브로보틱스는 올해 7월 가결한 기준 누계 매출에서 산업용 휴머노이드 솔루션 비중이 21.2%를 기록하며 신규 진입 1년 만에 주력 매출축으로 자리 잡음
: 공모 자금은 산업용 휴머노이드 개발 및 신규사업 확대(42억 원), 글로벌 진출 및 마케팅(165억 원), 구축형 RaaS 사업 로봇 디바이스 자산 확보(8억 원), 운영 프로세스 고도화(12억 원) 등에 활용할 계획

▶ **출중는 로보트다...일하는 로봇...보스턴다이나믹스 IPO 속도조절(서울파이낸스)**
: 현대차그룹 로봇 계열사 보스턴다이나믹스의 내년 기업공개(IPO) 추진에 신중론이 대두
: 기술 잠재력보다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현장 배치 역량으로 시장의 평가 기준이 옮겨가면서 현장 데이터를 축적하며 기술 완성도를 다듬는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
: 한 관계자는 "방대한 현장 운영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기 완성도를 끌어올려야 하는 만큼, IPO는 2029년이나 2030년이나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

▶ **현대차그룹, 실리콘밸리서 AI·자율주행·로봇 인재 직접 채용...9개 계열사 총출동**
: 현대차그룹이 17-18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현대차·기아·보스턴다이나믹스·모셔널 등 9개 핵심 계열사가 총출동하는 첫 'HMG Tech Talent Forum'을 열고 글로벌 인재 직접 채용 개시
: AI·로보틱스·자율주행 분야 인재 채용에 집중하며, 엔비디아·테슬라 출신 박인우 사장 및 테슬라 출신 김동욱 전무 등 글로벌 테크 리더 영입 기조 연장선
: 단기 실적보다는 2028년 엔비디아 기반 L2+/L2++ 구축 및 2029년 독자 자율주행 'Atria AI' 상용화 로드맵을 가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AI 전문 인력 확보가 핵심 목적
: 보스턴다이나믹스·모셔널·포티투닷·현대차 AVP 본부가 동시에 참여하며 그룹 내 미래 기술 조직을 SDV·자율주행·피지컬 AI의 통합 인재 풀로 구축하는 전략 가시화

▶ **내년 '공의 배터리' 달린다...상용화 경쟁 속도전**
: 중국 BYD와 CATL 등은 내년 전고체 배터리 실차 적용 및 시험 생산, 양산을 목표로 주도권 확보에 나섬
: 삼성SDI는 2027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샘플을 공급 중이며 토요타는 2027-2028년 상용화를 추진
: 벤츠와 BMW 등 유럽 업체는 이미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시험차로 1205km를 주행하는 등 실제 도로 검증에 돌입
: 글로벌 전고체 배터리 시장은 2030년 122GWh에서 2035년 493GWh로 약 4배 성장할 전망

▶ **기아, 60억 해일 세금분쟁 해소 조건으로 브라질 공장 건설 협상**
: 브라질 정부, 과거 아시아자동차 시절 발생한 약 60억여원(약 1조6042억원) 세부 채무 감면 조건으로 기아와 현지 공장 설립 논의
: 신설 공장 후보지는 부품 협력망이 갖춰진 피라시카바로 거론되며, 이르면 2028년 생산 개시 및 총 2만명 고용 창출 예상
: 기아 본사의 현지 직영 유통 전환 가능성 거론되나, 투자 규모와 감면을 등 세부 조건 조율 중으로 공식 계약은 미체결

▶ **현대차, 카자흐 최대 신도시 알라타우 프로젝트 합류**
: 현대차그룹, 카자흐스탄 민간 투자사 카스피안 그룹 및 유나이티드 그룹 알라타우와 알라타우시티 프로젝트 3자 협약 체결
: 알마티 북쪽 880km 규모 신도시이자 특별경제구역(SEZ)을 대상으로 피지컬 AI 기반 미래 스마트시티 사업 검증 착수
: 알라타우시티 게이트 구역 중심으로 모빌리티-에너지-디지털 연계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쳐 단계별 참여 방안 구체화 계획

▶ **한국서 떠나는日均 자동차...최대 600만원 파격 할인에도 '냉랭' 왜?**
: 올 연말 한국 시장 자동차 판매 절수를 앞둔 혼다가 최대 600만원 할인 프로모션을 연장했으나 8월 판매량은 33대에 그침
: 향후 8년간 AS를 유지하겠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품 수급 지연, 서비스센터 축소, 숙련 인력 이탈 등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큼
: 현대차와 기아의 하이브리드 기술력 향상과 전기차 전환 추세로 인해 혼다 주력 모델의 시장 경쟁력이 약화됨
: 대규모 신차 할인에 따른 중고차 시세 하락 가능성도 소비자의 구매 심리를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됨

▶ **레이보우로보틱스 RB-Y1, 미국 수출 일시 중단...현지생산 카드까지 검토**
: 미국 FCC가 해외 생산 첨단 로봇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레이보우로보틱스의 이동형 휴머노이드 RB-Y1 미국 출하가 일시 중단됨
: 한국의 2024년 로봇 수출 1.26조원 중 미국 비중이 약 40%에 달해 단기적 매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German firms lift China investment as US outlays fall, IW study shows**
: 독일경제연구소(IW)에 따르면 1H26 독일 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전년 대비 3분의 1가량 급증해 € 5.6bn 증가 기록
: 반면 대미 투자는 통상 마찰과 관세 우려로 전년 대비 약 3분의 2 급감한 € 4.3bn에 그치며 3년 만에 최저치 기록
: 저평가된 위안화와 정부 보조금으로 원가 경쟁력을 갖춘 중국을 현지 판매뿐 아니라 경쟁력을 단련하는 거점으로 적극 활용

▶ **China's robot electronic skin enters mass production as Fulai shipments top 40,000 units**
: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 생태계가 감속기와 액추에이터를 넘어 전자피부(e-skin) 및 촉각센서 영역까지 본격적인 대량 양산 단계 진입
: 저장 푸라이 신소재(Zhejiang Fulai New Materials)는 누계 4만개 이상의 로봇 전자피부를 출하했으며 대부분의 주문이 최근 6개월 내 집중 발생
: 쑤저우 념쓰다(Suzhou Nengsida) 등은 유연 압력 센서를 개발해 계란 쥐기 및 나사 조이기 등 미세 힘 조절을 구현했으며 향후 온도 감지 기능까지 통합 예정

▶ **European truckmakers seek delay to EU 2030 CO2 rules**
: DAF, 다임러 트럭, 이베코, 스카니아 등 유럽 주요 7개 상용차 제조사 CEO들이 2030년 대형 상용차 CO₂ 감축 목표의 준수 시점을 3년 연기해 줄 것을 EU에 공식 요청
: 현행 EU 규계안은 2025년 대비 신규 대형 상용차의 탄소 배출량을 2030년 -43%, 2035년 -64%, 2040년 -90% 감축하도록 법제화
: 현재 유럽 내 신규 대형차 중 무공해 차량(ZEV) 비중은 2.4%에 불과하며, 충전망·전력망 인프라 연결 지연과 높은 전력 요금이 친환경 상용차 보급의 핵심 병목

▶ **China's Pony.ai unveils latest robotruck model as it targets European sales**
: 하노버 IAA에서 중국 국유 완성차 GAC와 공동 개발한 레벨4 자율주행 순수전기 대형 로보트럭을 세계 최초 공개하고 2026년 말 양산 착수 예정
: 이미 중국 내에서 수백 대의 L4 트럭을 운영하며 일부 구간은 안전요원 없는 완전 무인 운행을 달성, 유럽 한만 및 정부와 도로 실증 허가 논의 진행 중
: 향후 2년 내 유럽과 중동 지역에 로보트럭 상용 서비스를 공식 출시할 계획으로, 운전기사 인건비 부담과 인력 부족이 극심한 유럽 시장에서 빠른 경제성 확보 기대
: BYD, Farizon, Sany 등 중국 상용차 업체들이 유럽 진출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의 모빌리티 경쟁력이 승용 EV에서 상용차 및 자율주행 영역으로 확장

▶ **Bosch aims to double sales in the heavy-duty commercial vehicle business**
: 대형 상용차 부문에 모빌리티 핵심 성장축으로 지정하고 현재 40억유로 이상인 관련 매출을 2030년대 중반까지 80억유로 이상으로 2배 확대한다는 목표 제시
: 2026년 유럽 신규 등록 전기트럭의 3분의 1에 모터와 인버터를 공급하며, 글로벌 상용차 OEM으로부터 대형 전동 파워트레인 수주를 확보해 장기 파트너십 구축
: BEV 단일화 대신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청정 내연기관을 포괄하는 기술 중립적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시장 변동성에 유연하게 대응

철강/비철금속/희소금속 뉴스

▶ 미국, 한국산 OCTG 반덤핑 명령 유지...대미 강관 수출 강변 경기가화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인도·튀르키예·우크라이나·베트남산 유정용강관(OCTG)에 대한 기존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명령 철폐 시 자국 산업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규제 유지 최종 결정 : 2026년 6월 미국 OCTG 수입량 10.4만short ton 중 한국산이 5.25만톤을 차지하며 MoM +46.6%, YoY +62.7% 급증해 미국 전체 수입 물량의 약 절반 점유 : 향후 핵심 변수는 개별 기업별 연례재심 결과에 따른 현금예치율(cash deposit rate) 산정 수준 ▶ EU-인도 FTA, 인도산 철강에 연간 약 69.5만톤 추가 무관세 쿠퍼터 : 인도가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연간 69만4,853톤(약 69.5만톤) 규모의 FTA 전용 철강 저율관세할당(TRQ) 무관세 물량을 신규 확보할 전망 : 기존 MFN 국가별 물량 94만6,616톤과 합산 시 인도에 배정되는 총 연간 TRQ는 약 164만톤에 달하며 열연(HRC)·냉연·도금강판·STS·강관 등 주요 품목 대거 포함 : EU의 신규 철강 세이프가드 체계는 전체 무관세 쿠퍼터 약 1,830만톤을 배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 대해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 ▶ 알래스카 LNG가 한국의 대미투자 후보로 부상...강관·후판 신규 수요 가능성 : 총 사업비 약 440억달러 규모의 초대형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한국 기업들의 추가적인 대미 투자 유력 후보군으로 재부상 : 알래스카 북극권 노스슬로프(North Slope)에서 니키스키(Nikiski)까지 약 1,300km 구간의 가스 파이프라인과 LNG 액화·저장·수출 터미널을 건설하는 프로젝트 :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지분 참여 및 LNG 오프테이크 검토가 거론되며 사업 가시화 시 POSCO-세아제강-현대제철-현대제철관 등의 대규모 강관 및 에너지용 후판 대규모 공급 기회 대두 ▶ 중국 재생동봉 가동률 11.8%...고동가-세제 변화가 스크랩 시장 압박 : 중국의 8월 재생동봉(secondary copper rod) 공장 평균 가동률은 11.83%로 MoM +1.57%p 소폭 회복했으나 YoY 기준으로는 16.5%p 급락하며 극심한 가동 부진 지속 : 전기동봉과 재생동봉 간 스프레드가 1,450-1,874위안/톤까지 확대되며 경제성이 발생했음에도 역발행 세계 규제에 따른 세금 부담과 적격 동스크랩 부족으로 정상 생산이 불가능한 구조 : 일부 핵심 지역의 고품위 브라이트 구리(bright copper) 재고는 전년 동기 대비 1/4 이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파악 : 글로벌 구리 가격 고공행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원료 스크랩 공급 부족이 정련동(refined copper)에 대한 대체 수요 확대를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포스코인터, 美 셰일가스 자산 인수 추진...5329억 유증·1조 채무보증 :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미국 셰일가스 자산 인수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현지 에너지개발 자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 E&P USA에 대규모 자금 지원을 결정 : 해당 자회사의 보통주 2000주를 새로 발행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해 5329억원을 전액 출자하며 기존 지분 100%를 동일하게 유지 : 자산 인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 3월 15일까지 1억9760만달러(약 2661억원)를 연 4.6%의 이자율로 대여 : 원활한 자금 조달과 향후 가스사업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7억8160만달러(약 1조523억원) 규모의 채무보증도 추가로 제공 : 지난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 지분 취득에 이어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핵심 에너지 사업 투자를 전략적으로 확대 ▶ ESS 시장 확대에 철강 수요 '쑈'...관건은 국산재 활용 : 9월 3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 규모가 최대 1GW로 확대 거론되며 기존 1·2차(각 563MW) 대비 회차별 용량이 약 78% 증가할 전망 : 6시간형(6GWh) 적용 시 5MWh급 인클로저 1,200대 소요로 회차별 철강재 수요가 약 1만 2,000톤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추산 :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확대로 ESS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인클로저 제작 및 사용 철강재의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 : 정부 산업경쟁력 평가 대상이 배터리·PCS 등에 국한되어 있어 인클로저와 철강재까지 평가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업계 요구 지속 : 국가 핵심 인프라의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KS 인증 철강재 사용 유도 및 국산 소재 사용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와 필요 ▶ 韓-중앙아 6개국,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첫발...현지 정·재권까지 확대 : 한국 산업통상부와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키르기스·타지크·투르크메·우즈베크)이 서울에서 '제1차 한-중앙아시아(C5+1) 산업장관회의'를 열고 다자 협력 개시 : 리튬·희토류 등 핵심광물 분야에서 단순 채굴과 원자재 수입을 넘어 현지 정·재권, 고부가가치 소재 가공, 완제품 생산까지 이어지는 다운스트림 밸류체인 구축 추진 : 중앙아시아 각국의 복합 산업단지 조성, 스마트 인프라 확충, 노후 플랜트 현대화 사업에 한국 기업들의 제조 및 설비 경쟁력을 집중 : 국내 스마트공장 솔루션과 제조 AI·데이터 기술을 현지 공장에 적용하고 기술 인제 교류를 확대해 유라시아 첨단 산업 생태계 공동 개척 도모 ▶ 미탈-진시그룹, 중국 창저우서 180만톤 규모 전기강판 기지 착공 : 아르셀로미탈과 진시그룹 합작법인이 창저우 빈강 경제개발구에서 전기강판 합작 브랜드 'AMORNEX'를 출범하고 핵심 설비 구축에 착수 : 총 투자금액 약 50억위안(약 9,500억원) 규모의 대형 외자 프로젝트로, 창저우시 단일 외자 투자 총 최대 규모 수준 : 허베이성 당산(상공정 원자재)과 장쑤성 창저우(하공정 가공·운행)로 이뤄져야 연간 총 180만톤의 고급 전기강판 생산 체계 구축 목표 : 1기 1단계로 27년 6월 상업 가동 목표 삼아 연산 50만톤 규모 고성능 무방향성 전기강판 생산 라인 조성 중 : 6년 연속 냉간압연기(CTCM) 설치와 220kV 전동 변전소 공사를 가속에 신에너지차(NEV) 구동 모터 및 친환경 가전 시장에 공급할 계획 ▶ EAEU, 중국산 STS 용접강관 반덤핑 관세 5년 연장...최대 17.28%(철강금속신문) : EAEU 산하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 역내시장방구에서 21년부터 부과한 중국산 STS용접강관 반덤핑 일률재심 연장 결정 : 대상 품목은 관 두께 0.4~6mm 수준의 STS 용접강관 : 포산비메이 스테인리스강유한공사에 14.62%, 광동성원신소재그룹 등 나머지 생산업체 17.28% 수준 관세를 유지 ▶ 아르셀로미탈, 중국 내 전기강판 생산 투자(철강금속신문) : 아르셀로미탈과 중국동방그룹이 연산 200만톤 가까운 전기강판 생산 체계 구축 : 창저우 공장에 우선 연산 50만톤 규모 고급 무방향성 전기강판 생산라인 투입, 상업 생산은 27년 6월을 시작으로 향후 연간 180만톤까지 생산능력 확대 목표 : 중국 전기강판 생산은 지난해 약 1,779.1만톤(전년 대비 11.3% 증가)	▶ 반도체 패자원서 핵심광물 캔다...기후부, 규제 풀어 '도시광산' 육성(전자신문) : 정부, 반도체 생산 중 버려지는 실리кон·핵심광물 회수를 위해 규제 완화 추진 : 기후에너지지환경부는 순환경제 분야 '기획형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3개 과제를 추진할 사업자 모집 :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의 핵심광물 회수도 본격화, 사용후 배터리 글로벌 시장은 2050년 600조원으로 확대될 전망 : 정부는 기존 재활용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별도 기준이 없어 사업화하지 못했던 신기술의 실증을 허용하고 규제 개선으로 연결할 계획 ▶ 수은, 우즈베키스탄과 전략적 사업발굴 MOU...핵심광물·AI 등 6대 분야 협력(전자신문) : 한국수출입은행,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무역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우리 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 지원과 중앙아시아 경제 파트너십 확대 추진 : 이번 협약은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의 중 진행 : 협력 분야는 핵심광물, 인공지능(AI)·디지털, 첨단 인프라, 한국기업 전용 특화 산업단지 조성, 제약·바이오 등 우즈베키스탄 6대 국가전략산업 전반 ▶ 저PBR 공표 D-1개월...현대제철·아마트 등 '사정권' 명단은 : 한국거래소, 자본시장 체질개선 후속 조치로 오는 11월 2일 장기간 주가순자산비율이 낮은 저PBR 상장기업 명단을 첫 공표 예정 : GICS 11개 업종별 최근 3년간 매 반기 P/B 기준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 대상이며 6개 반기 중 1회라도 기준 상회 시 제외 : KB증권 분석 결과 현대제철, 롯데쇼핑, 아마트, 한화생명, 대신증권, DB증권, 대한해운 등이 코스피 공표 대상 기업군에 포함 : 10월 22일까지 기업거치 제고 계획 공시 시 1년 유예되나 6년 연속 저평가 기업은 제외 대상이며, 10월 22일 기준 P/B 상회 시 공표 제외 ▶ 현대제철-포스코 미국 제철소 채권 발행에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반발, 자금 조달 변수 내나 :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미국 루이지애나 전기로 제철소 건설(58억달러 투자, 2029년 생산)을 위해 최대 9억달러 규모의 비과세 채권 발행 추진 : 비과세 채권은 민간 프로젝트 지원용으로 세계 헤컱이 적용돼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합작법인(HPLS)의 재무 부담 경감 가능 : 그러나 14일 열린 루이지애나 공공시설청(LPFA) 청문회에서 환경오염 우려 및 과도한 주정부 지원 등을 이유로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강력 반발 : 청문회 공자 역시 11일 만에 이뤄져 절차적 문제까지 제기됐으며 지지 발언은 전무 : 17일 주 채권위원회 심의 및 최종 승인을 앞두고 반대 여론 수용 시 채권 발행이 지연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있어 자금 조달의 핵심 변수로 부상 ▶ 포스코노조, 18일부터 부분파업 확대...포항 1·2열연·광양 3·4열연까지 : 포스코노조, 18일 오전 7시부터 2차 부분파업 대상 개소에 포항 1열연·광양 3열연 전 개소 및 포항 2후판 일부 라인을 추가해 주요 열연 생산라인으로 확대 :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격려금 600%·우리사주 50주를 요구 중이며, 사측은 기본급 2.0% 인상·격려금 350만원·상품권 50만원을 제시해 이견 지속 : 사측은 15일 8차 교섭에서 '18일까지 임금교섭'을 제안했으나 노조는 진전된 것이 없다며 거부하고 예정대로 파업 강행 : 회사는 강화된 비상대응체제로 정상 조업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며, 노조는 선거 일정에 따라 22일부터 단체교섭을 잠정 중지한 후 추후 쟁의계획 공표 예정 ▶ DI동일, 압연부터 카본 코팅까지...알루미늄박 밸류체인 확장 : DI동일, 충청북도·청주시와 1,107억원 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청주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에 카본 코팅 알루미늄박 생산기지 구축 : 2027년 하반기까지 부지 4만3,269㎡ 규모 생산시설을 완공해 신규 고용 151명을 창출할 계획 : 전국과 알루미늄박의 접촉 특성을 개선해 고성능하는 ESS 및 LFP 배터리에 필수적인 카본 코팅 알루미늄박 기술 내재화 : 인접한 곳에 건설 중인 신규 알루미늄 압연공장과 공정을 직접 연계해 생산·물류 효율을 극대화하고 2차전지 소재 경쟁력 제고 ▶ KG스틸, '삼원계 컬러강판' 품질 KS로 입증 : KG스틸은 당진과 인천 공장의 전 생산라인에서 도장 용융 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 합금도금 강판에 대한 KS D 3034 인증을 취득함 : 원소재부터 도장 컬러강판 완제품까지 일관생산 체계를 구축해 저가 수입재와 차별화된 품질 신뢰도와 공급 안정성을 확보함 : 프리미엄 브랜드 X-TONE과 불연 컬러강판을 앞세워 고내식 건축재 및 공공시설 시장 공략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 ▶ LS, 중앙아 3개국과 핵심광물 등 사업협력 확대 : LS그룹이 16일 한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 3개국과 통신 인프라 및 핵심광물 협력용 MOU 3건을 체결함 : LS전선은 투르크메니스탄과 2024년부터 광케이블 제조시설 설립 및 대규모 케이블 공급 방안을 협의하며 LS마린솔루션과 연계해 현지 시공 수주도 추진할 계획임 : LS MnM은 타지키스탄과 광물자원 개발 투자를 공동 검토하고 카자흐스탄 연구기관과는 희소금속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자간 장기 협력을 맺음 : 풍부한 광물자원과 인프라 수요를 지닌 중앙아시아를 바탕으로 신시장 진출 및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에 속도를 낼 전망 ▶ 중국 아연 재고 3일 만에 9천톤 감소...상하이 재고는 7.53만톤 : 9월 17일 기준 SMM 7개 지역 아연과 재고는 21.35만톤으로 9월 14일 대비 3일 만에 9000톤이 급감 : 상하이 재고는 7.53만톤까지 축소되었으며 아연 가격이 2만6000위안/톤 부근으로 하락하자 하공정 업체의 저가 매수 및 재고 확충이 집중됨 : 현물 공급 부족으로 공급업체들의 현물 프리미엄 인상 기조가 뚜렷해지며 단기 유통재고 감소가 가격 하단을 지지 ▶ 중국 건설강재 재고 -2.9% WoW...성수기 수요 회복 조짐 : 중국 건설강재 총재고는 764.67만톤으로 전주 대비 22.59만톤(-2.87%) 감소하며 디스톡 속도가 유의미하게 가속화됨 : 유통 사회재고는 509.3만톤으로 전주 대비 17.83만톤(-3.38%) 줄었으며 선물가격 반등과 연휴 대비 사전 재고 확보 수요가 반영됨 : 높은 원가로 적자가 누적된 고로사들은 감소·보수를 지속하는 반면 전기로 업체들은 마진 회복을 바탕으로 가동률을 상향
--	---

자동차/철강금속 Global Weekly

신한투자증권 기업분석부 | 박광래



		증가		1D	1M	3M	6M	YTD
글로벌	지수							
한국	KOSPI	6,715.4	(0.0)	(3.8)	(24.2)	19.1	59.4	
	KOSDAQ	822.2	0.8	(4.9)	(20.3)	(27.7)	(11.2)	
미국	S&P 500	7,551.8	0.0	(2.5)	1.8	12.4	10.3	
	다우존스	51,461.9	0.0	(3.7)	(0.1)	9.5	7.1	
	나스닥	25,978.4	0.0	(2.5)	(0.2)	15.6	11.8	
	S&P/TSX	35,491.3	0.0	(3.2)	1.0	7.8	11.9	
유럽존	스탁스 600	642.6	0.9	(2.1)	0.5	6.7	8.5	
	유로스탁스 50	661.7	0.0	(3.8)	(1.6)	7.7	8.1	
일본	닛케이 225	64,136.3	0.3	(7.3)	(8.2)	19.4	27.4	
홍콩	HSI	24,604.3	(0.4)	(3.3)	1.2	(4.9)	(4.0)	
	HSCEI	8,175.4	(0.4)	(3.1)	0.4	(7.4)	(8.3)	
중국	상해종합	3,875.6	(0.4)	(2.7)	(5.7)	(4.3)	(2.3)	
	심천종합	13,409.9	(0.3)	(8.8)	(15.6)	(4.5)	(0.9)	
	CSI 300	4,460.2	(0.4)	(5.9)	(9.6)	(3.8)	(3.7)	
환율								
	달러인덱스	100.2	(0.0)	0.6	0.2	0.7	2.0	
	원/달러	1,381.7	0.9	(2.3)	(8.7)	(7.5)	(4.1)	
	엔/달러	155.7	0.4	(2.2)	(2.9)	(2.1)	(0.6)	
	유로/달러	1.1	0.1	(0.9)	(0.2)	(0.6)	(2.3)	
	위안/달러	6.7	0.0	0.5	(0.8)	(2.6)	4.1	
시총(mn\$)		1D	1M	3M	6M	YTD	12MF P/E	12MF P/B
완성차								
현대차	61,593	0.3	(19.9)	(41.3)	(30.5)	22.4	8.1	0.7
기아	34,281	0.2	(14.7)	(27.3)	(27.7)	(0.7)	5.2	0.7
KG모빌리티	380	(1.1)	(11.3)	(19.8)	(26.0)	(26.1)	7.9	0.3
Toyota	283,363	0.6	0.7	8.0	(10.2)	(9.6)	9.3	0.9
Honda	49,559	1.4	1.3	20.7	27.3	11.2	10.3	0.5
Suzuki	25,734	1.0	(2.2)	5.0	5.8	(12.3)	8.9	1.0
Subaru	12,332	2.3	5.0	4.0	4.2	(20.9)	10.4	0.6
Nissan	7,432	(0.4)	(5.3)	(10.6)	(12.4)	(19.8)	11.7	0.2
Mazda	4,736	1.2	(0.5)	2.8	2.8	(3.9)	6.7	0.4
Mitsubishi Motors	3,495	2.3	7.5	13.0	3.5	0.8	13.0	0.5
Tesla	1,446,324	2.3	7.9	(7.6)	(8.3)	(18.6)	169.0	13.4
GM	76,005	2.8	2.7	8.8	17.0	6.5	5.9	1.1
Ford	54,271	1.9	(3.1)	(2.5)	14.0	3.7	7.1	1.4
Rivian	22,297	1.1	3.6	(5.3)	(2.7)	(21.9)	-	6.4
Stellantis	14,765	2.3	0.1	(23.2)	(24.6)	(53.1)	5.5	0.2
Ferrari	73,021	0.7	(0.6)	15.6	22.8	12.7	33.7	12.9
Mercedes-Benz	50,993	1.8	1.5	(1.2)	(14.0)	(23.1)	7.2	0.5
VW	47,252	4.7	11.9	(5.2)	(7.8)	(21.0)	4.0	0.2
BMW	44,631	1.7	8.4	1.6	(20.3)	(32.1)	7.4	0.4
Porsche	24,845	5.1	6.8	(3.0)	28.1	4.3	22.7	1.7
Renault	9,814	2.4	2.0	6.3	1.9	(18.3)	4.9	0.4
BYD	106,953	1.2	(5.5)	(2.9)	(17.4)	(13.0)	15.8	2.5
Geely	21,998	(0.7)	(14.3)	(16.0)	(15.1)	(10.6)	6.0	1.2
SAIC	19,182	(1.0)	11.1	6.0	(23.5)	(26.5)	11.2	0.4
Li Auto	12,341	0.9	(3.3)	(13.0)	(34.2)	(27.7)	244.0	1.1
Xpeng	10,059	1.9	(11.7)	(22.8)	(47.3)	(48.1)	-	2.0
Maruti Suzuki	40,428	1.4	(10.3)	(9.5)	(4.9)	(26.1)	22.7	3.2
Mahindra	38,512	0.2	(9.3)	(1.8)	(1.7)	(17.1)	20.9	3.9
Bajaj Auto	32,936	(0.8)	(1.4)	14.5	26.2	23.1	25.7	7.7
TATA Motors	12,072	4.5	(4.8)	(12.9)	(1.5)	(14.4)	8.2	0.9
타이어								
한국타이어	5,299	1.9	(17.7)	(13.1)	4.6	1.0	4.9	0.5
금호타이어	1,465	(0.1)	(13.8)	40.7	21.2	19.8	4.9	0.7
넥센타이어	415	(0.2)	(16.9)	(24.4)	(22.9)	(25.8)	3.8	0.3
BridgeStone	32,346	2.0	(7.5)	8.1	15.3	7.8	12.1	1.2
Yokohama	7,324	2.4	(10.2)	(11.3)	13.3	14.3	8.1	0.9
Toyo Tires	3,753	2.3	0.1	(0.4)	2.7	(12.2)	7.2	0.9
Sumitomo Rubber	3,400	1.3	(14.4)	(11.6)	(2.9)	(16.3)	7.7	0.7
Linglong Tire	2,267	(0.4)	(5.9)	(7.6)	(29.4)	(28.5)	10.5	0.6
Michelin	26,439	1.1	(3.0)	0.7	12.4	18.5	11.0	1.2
Continental AG	16,220	1.3	2.2	(2.7)	12.8	4.1	10.3	2.9
Pirelli & C	7,953	1.3	(3.8)	(0.5)	10.8	9.2	11.4	1.0
Goodyear	1,483	(0.2)	(14.9)	(16.4)	(23.6)	(41.2)	20.9	0.5

Compliance Notice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 박광래).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자기 회사의 최초 증권사실명시 대표 증권사실명시 확인하였습니다.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자기 회사의 주식 등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제공일 현재 자회사인 삼성증권은 자기 회사의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권력적 보상과도 연관이 되지 않습니다. 당 자료는 자기 회사 및 자기 회사의 위임받은 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장에서의 의견 및 추천지로서 실익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자를 유혹하거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활용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속의 선택에 따라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항목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책임 하에, 대외, 제보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시총(mn\$)		1D	1M	3M	6M	YTD	12MF P/E	12MF P/B
부품								
현대모비스	24,854	(0.5)	(30.3)	(39.6)	(7.6)	2.1	7.4	0.6
한온시스템	2,452	(1.6)	(13.9)	(32.4)	(19.7)	11.0	12.6	0.8
DN오tomotrb	2,044	3.9	(18.3)	6.7	34.4	97.1	6.2	1.0
에스엘	1,704	0.4	(18.0)	(30.9)	(23.1)	17.9	5.8	0.8
HL만도	1,647	(0.2)	(15.4)	(34.6)	(8.0)	(17.7)	9.7	0.8
현대위아	1,084	(0.2)	(19.0)	(34.0)	(36.4)	(27.5)	8.2	0.4
세방전지	610	(0.2)	4.5	(4.9)	(0.3)	(3.5)	-	-
SNT모티브	505	0.4	(7.9)	(15.1)	(20.8)	(24.1)	6.6	0.6
한국단자	414	0.0	(12.3)	(27.4)	(26.2)	(16.3)	4.5	0.4
명신산업	300	0.0	(3.1)	(10.4)	(25.3)	(12.3)	4.4	0.4
Hitachi	158,906	1.9	(1.7)	16.5	14.0	11.7	22.9	3.5
Sumitomo Electric	41,711	0.3	(17.0)	(33.3)	(13.8)	29.8	16.5	2.1
Denso	36,147	1.4	1.1	1.2	(0.2)	(10.1)	11.4	0.9
Aisin	10,609	2.3	1.9	(3.7)	(1.4)	(22.0)	9.5	0.7
Johnson controls	85,446	0.4	(8.4)	(1.8)	6.4	17.8	23.1	5.6
Valeo	4,363	4.8	4.6	9.7	48.7	33.2	9.3	1.0
Brembo	3,974	2.3	2.4	(4.5)	19.9	10.2	12.7	1.3
Cummins	72,120	(0.7)	(18.3)	(27.0)	(3.6)	2.6	15.7	4.4
Genuine Parts	18,043	0.3	(1.2)	23.3	27.3	6.4	15.9	3.5
Magna international	17,186	1.7	(8.3)	(1.0)	18.4	24.1	8.5	1.4
BorgWarner	12,986	2.4	(8.8)	(9.6)	21.9	41.5	11.1	2.0
Aptiv	9,057	0.6	(12.8)	(30.6)	(28.5)	(32.3)	6.9	0.9
Autoliv	8,493	1.4	(2.7)	1.0	12.8	(1.0)	10.3	2.9
2차전지 셀								
LG에너지솔루션	62,032	(0.5)	(1.2)	(12.3)	(4.1)	(0.9)	61.6	3.8
삼성SDI	31,800	(0.9)	4.5	(2.0)	38.6	100.0	35.3	1.8
SK이노베이션	17,177	2.3	8.3	27.9	25.7	37.7	12.5	0.9
CATL	214,174	(0.4)	(23.9)	(23.7)	(24.9)	(17.1)	12.4	3.1
파나소닉	66,949	(2.7)	(11.0)	1.5	63.8	110.6	18.8	1.7
EVE에너지	15,630	(0.9)	(15.7)	(28.6)	(29.7)	(26.7)	11.4	1.8
2차전지 양극재								
LG화학	14,395	(1.1)	(4.5)	(25.8)	(12.8)	(19.5)	13.9	0.6
포스코퓨처엠	11,770	(3.2)	6.9	(13.0)	(5.6)	(2.6)	232.5	3.9
에코프로비엠	8,036	(1.3)	(10.6)	(42.0)	(46.1)	(28.8)	150.1	5.5
에코프로	8,116	0.1	(12.1)	(33.0)	(44.9)	(9.4)	43.7	4.7
엘앤에프	3,289	0.3	1.5	(20.8)	1.1	16.9	67.1	5.9
SMM	17,359	(3.8)	(6.2)	1.9	(2.5)	46.7	10.6	1.1
Umicore	6,271	0.9	(7.3)	(7.3)	31.5	24.0	12.2	2.0
철강								
POSCO홀딩스	18,791	0.0	(2.2)	(15.1)	(4.7)	7.0	11.1	0.4
현대제철	3,305	(1.4)	14.0	(2.3)	(4.1)	9.8	15.1	0.2
세아베스틸지주	1,184	5.1	1.0	(1.7)	(33.4)	(9.5)	12.7	0.8
KG스틸	410	0.7	(0.7)	(3.4)	0.0	5.6	3.7	0.3
세아홀딩스	405	(0.8)	2.8	1.4	(13.4)	(8.6)	2.5	0.2
동국제강	356	(0.9)	0.1	(2.2)	7.3	19.8	6.8	0.2
세아제강	304	1.4	11.0	1.0	6.2	25.7	4.9	0.3
ArcelorMittal	58,229	1.3	3.5	13.4	45.0	67.7	11.6	0.9
Nippon Steel	24,160	2.9	4.9	26.0	18.6	9.5	11.0	0.6
BaoSteel	18,579	(0.9)	(0.3)	(0.9)	(16.4)	(23.2)	10.6	0.6
비철금속/광물								
고려아연	17,024	(1.0)	(6.1)	(10.9)	(30.3)	(14.7)	17.8	1.8
LS	6,889	0.2	(6.0)	(29.8)	15.6	52.1	12.5	1.6
풍산	1,590	1.7	(4.8)	2.6	(23.8)	(26.7)	8.3	0.8
BHP	216,916	0.0	(3.2)	(8.2)	21.1	32.4	17.2	3.8
Rio Tinto	166,818	1.7	2.8	(6.4)	8.4	22.2	11.6	2.2
Southern Copper	165,584	3.3	2.1	3.5	13.2	40.9	26.8	11.0
Freeport-Mcmoran	101,742	2.3	3.6	2.6	22.0	39.5	18.2	3.9
Glencore	91,109	1.6	5.9	0.5	11.9	44.2	13.0	2.1
Vale	64,494	2.1	4.3	(4.0)	(3.0)	6.4	7.7	1.5
Anglo American	63,889	3.6	3.2	(1.9)	29.3	31.4	23.0	2.7
Teck Resources	32,014	1.5	0.6	(0.8)	30.5	36.2	17.1	1.5
SQM	19,622	4.5	(4.4)	(13.5)	(6.9)	4.4	10.2	2.7
Albemarle	13,576	5.1	(14.1)	(30.9)	(30.8)	(18.7)	10.4	1.3
Lynas Rare Earths	9,750	(1.2)	(17.7)	(24.5)	(31.7)	9.9	22.3	3.2
MP Materials	8,795	0.8	(15.6)	(18.8)	(16.7)	(2.3)	70.1	4.7

